

# 共產圈과의 交流와 理念教育의 課題

서울大學校 教授 李 容 弼

## 머 리 말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지난 1973年 6·23宣言 이후 共產主義國家들과 文化, 藝術, 스포츠 그리고 經濟의 交流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對公산권의 姿勢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非適性 國家인 경우에는 文호를 개방하여 多次元的 交流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闡明한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과 같이 地球村에서 通信과 交通手段이 엄청나게 發達되고 國家間的의 相互協助와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하게 또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狀況에서 閉鎖的인 고립주의를 벗어나야 나라가 生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 나라가 공산권과의 교류를 推進해 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산권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理念教育이 어떠한 方向에서 定立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가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념교육의 課題는 1) 共產圈의 變化와 現位相 2) 우리의 國益伸張 3) 思想的 昏迷 4) 南北의 分斷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理念教育의 方向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共産主義이데올로기 路線의 修正

共産國家들이 표방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는 자체 內에 內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모순과 誤謬로 말미암아 時代의 變化와 더불어 多樣하게 修正 變質되어 왔다. 共産主義이데올로기에 의하면, 資本主義社會는 반드시 崩壞되고 能力에 따라서 일하고 必要에 따라서 分配받는 풍요로운 共産主義사회가 到來한다고 主張되었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生産手段이 共有化되며 分業이 廢止되고 階級間的 區分도 사라짐으로써 완전한 自由와 平等이 保障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은 제22차 共産黨大會에서 “소련은 사회주의단계를 완성하고 階級없는 공산주의단계의 進路에 들어서고 있다”고 장담하였고 1967년 당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혁명 50年」에 관한 提제에서는 “社會主義的 生産의 成長은 소련국민의 物質的 福祉와 社會文化의 향상을 위한 튼튼한 基盤을 構築하였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公言이 엄청나게 빛나간 豫言에 연유된 것이며 한낱 거짓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와 共産主義社會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現實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共産主義國家들의 여러 가지 政策의 變化를 통해서 우리는 共産主義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共産主義者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生産性이 계속 向上되어 왔으며 富도 모든 사람에게 보다 넓게 分배되었고 경제적 불안정과 침체에 대처하는 能力도 오히려 增大되어 왔다. 또한 勞動者와 資本家間的 階級鬭爭이 尖銳化되기보다는 勞·使間的 協助를 通한 秩序있는 生産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政治적·경제적 社會的 活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있다.

반면에 共産主義社會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 葛藤이 노출되고 있으며 不平等構造가 深化되고 있다. 그러한 葛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共産主義體制 特有의 목표의 이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산주의체제는 공산주의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階級없는 社會라는 유토피아의인 目標과 現實의인 發展追求라는 두가지 目標間的 乖離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葛藤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소련 中共 그리고 동구의 공산국가들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마르크스主義 統治이데올로기를 部分的으로 또는 全面的으로 修正·變更하면서 政治·經濟·社會體制에서의 改革措置를 단행하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政治·經濟·社會發展을 加速化하고 國民生活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그라스노스트(glasnost, 開放性) 政策과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全般的 再編) 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中共의 경우 등소평은 毛澤東의 社會主義 教條에서 벗어나 '四個 現代化'라는 實用主義 路線을 展開하고 있다. 그는 1986年 11月 黨機關紙「光明日報」에서 "共産主義는 더 이상 中共의 國家理想이 아니며 中共學者들이 반드시 마르크스主義者이어야 할 必要가 없다……民主의 이고 繁榮된 文明國家 建設이 보다 現實的인 人民의 共同目標이자 理想"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마르크스主義批判의 次元을 넘어서 實用主義 路線에로의 轉換임을 示唆해 주고 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를 비롯한 東歐共産國家들도 既存의 소련식 이데올로기 노선에서 탈피하여 直接民主制의 要素를 部分的으로 導入하는 獨特한 社會政治制度로 轉換되고 있으며 經濟에 있어서도 市場經濟의 原理를 追求하고 있다.

## 2. 共産主義體制的 變化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共産主義社會들은 政治·經濟·社會的으로 當面해

있는 問題들을 解決하고자 많은 變化를 試圖하고 있다.

소련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問題點으로 과도한 中央執權化로 인한 政治的 無關心, 黨의 一方의인 強壓政治에 따른 黨과 國民間의 괴리, 官僚體制의 保守性, 特權層의 無事安逸主義 不定腐敗, 機會主義, 形式主義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硬直化되고 閉鎖된 社會에서 나타나는 病廢로써 社會 各 部門間의 有機的 기능을 마비시키고 下部構造로서의 經濟구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國內적으로는 실질적이고 全面的인 再編改革措置를 통하여 소련의 國力を 倍加시키고 國民의 精神적 물질적 생활을 질적으로 向上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再編이란 停滯的 過程을 단호히 克服하고 制動裝置의 메카니즘을 타파하여 소련사회의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확실하고도 유효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規定하면서 再編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즉 “便宜主義 및 출세주의자, 形勢觀望主義者, 貪慾과 蓄財 暴飲 不道德으로 당원과 소비에트 指導者의 名譽를 더럽히는 자들을 단호히 排除할 必要가 있다. 緣故主義 情實 同鄉의 情理와 個人的 忠誠에 따라 黨의 일꾼을 발탁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鬭爭하지 않으면 안된다. 當규약과 소비에트 법률을 최대한 엄격히 適用하여 사기꾼과 傭兵을 감싸려는 者의 책임을 묻고 우리들의 原則을 故意로 무시하는 者들을 公開하고 社會的 彈劾을 加할 必要가 있다. 칭령하고 誠實한 리더쉽을 확립하는 것이 각 黨조직의 최대의 任務인 것이다”라고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는 意識改革措置(不定腐敗, 無事安逸, 알콜中毒, 官僚的 硬直性과 閉鎖性 등의 退治) 經濟的 效率性 提高를 위한 措置(市場經濟, 獨立採算制, 能率俸給制 및 西歐 私企業과의 合作投資 擴大 등), 民主化措置(言論統制 緩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檢閱 緩和 反體制人士의 釋放 및 複數 推薦 祕密投票制 실시 등) 라는 세가지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소軍縮 東西減軍 및 非核地帶 設置 등을 提議하였다.

中共은 1978年 12월부터 실질적 지도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등소평의 주도 하에 농업, 공업, 과학기술 및 國防에서의 ‘四個現代化’ 政策을 追求해 오고

있다. 중공 지도층은 1982년에 채택했던 黨憲章과 1983년에 채택했던 국가헌법에서 四個부문에서의 現代化가 階級鬭爭보다 더욱 중요한 과업이라고 闡明하면서 과감하게 資本主義 原則을 원용한 改革을 實施해 왔다. 이는 計劃經濟와 집단노동을 지양하고 시장기구와 개인노동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공은 物質誘因과 所得의 隔差 심지어 破産과 失業까지도 認定하면서 生産增進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中共은 美國, 日本 및 西方國家들과 資本 貿易 技術交流를 擴大해 왔을 뿐 아니라 文化 學術交流까지도 점차 擴大하고 있다. 轉換期에 처한 中共은 '밖으로부터의 충격'(開放)을 통해서 理念·價値觀·合理的인 思考를 전체 社會에 보편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生産 責任制를 導入함으로써 農村經濟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都市經濟의 活性化 및 전체 經濟의 生産性과 효율성 향상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價格, 租稅, 金融, 換率 등 서방적인 市場메카니즘을 도입하여 計劃經濟의 硬直性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구 공산국가들 內에서도 주목할 만한 理念 및 體制의 變化를 겪고 있다. 이러한 變化로는 祕密경찰 活動의 제한, 1인체제로부터 집단적 寡頭體制로의 轉換, 경제정책 결정의 지방분권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전문엘리트의 등장 여러 형태의 多元主義 擡頭 등을 들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直接民主制의 理念에 기초하는 노동자 自主管理制(市場社會主義模型)에 입각해서 政治·經濟體制를 改革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들은 社會主義社會에서 過度한 權力 集中과 官僚主義的 統制로 말미암아 個人의 自由가 희생되기 쉽다는 데 착안하여 이러한 사회정치체도를 만들어 내었다.

헝가리 共產主義者들도 既存의 헝가리 경제체제에서 기인하는 構造的 缺陷 즉 生産의 不均衡 需要에 대한 供給의 不適合 및 技術革新의 遲延 등을 改善하고자 意思決定的 分權化(企業의 自立化), 市場機構의 導入 및 個別經濟의 間接的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改革을 단행하였다.

그 외에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도 脫蘇政策에 입각한 自由化·民主化 改革措置를 실시하고 있으며 經濟에서의 非能率의 要素들을 除去하고 經

濟체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메콘加盟 東歐國家들은 1984年 6月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코메콘首腦會議에서 밝힌 바 있는 聲明에서와 같이 西方先進국가들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科學이나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국가들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혁조치는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정부기구의 縮小 中央統制緩和, 複數候補制 및 秘密投票制, 外國의 합작투자나 개인기업의 허용 등의 정치경제 개혁이 東歐社會主義 國家 모두의 課業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北韓共産主義의 教條的 硬直性

북한 공산체제는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高度로 硬直化된 教條에 의해서 철저하게 中央統制되는 전체주의적 閉鎖性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소련이나 중공 및 동구 공산국가들이 이념과 체제의 변화를 試圖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北韓共産主義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공산체제의 권력구조는 김일성의 唯一支配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의 總祕書 黨中央人民委員會의 지위 및 국가주석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軍의 最高統帥權까지도 장악함으로써 1人支配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북한 공산체제는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각종 사회집단들과 매스미디어를 劃一的으로 管理하고 있다. 또한 勞動黨은 방대한 지방당조직과 黨細胞를 통해 北韓住民을 대중조직화하고 있다.

셋째 북한 공산체제는 고도의 排他性을 가진 이데올로기에 의해 支配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대변되는데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勞動黨의 指導理念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북한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이념으로서 북한헌법에서는 '주민생활의 指導的 指針'으로 明文

化되어 있으며 당규약에서도 당의 最終目標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北韓 共産體制는 이러한 지도이념과 中層노선을 사용하여 北韓주민들을 철저히 동원하고 있다.

넷째 북한경제체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관리체제에 의해 調整·統制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作成과 執行에 대한 감독은 中央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道·市·郡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一元的인 관리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은 어떤 다른 공산체제보다도 經濟組織이나 그 運營을 中央에서 감독·통제하고 또한 集團化와 協同化를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個人들의 자발적인 창의성이나 動機賦與를 增大시킬 수 없다. 북한경제체제의 이러한 구조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北韓經濟는 生産性的 增大를 가져올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체제가 정치·경제·사회체제들에 있어서 高度의 教條的 硬直性을 수반하고 있고 철저히 閉鎖的인 동원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김일성은 '代를 이은 革命事業'을 강조하면서 그의 支配體制를 그의 아들인 金正日에게로 계승시키고자 試圖하고 있다. 그는 "黨과 首領의 領導는 마땅히 끊임없이 받아들여져서 完成되어야 하며 계승문제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根本的이고도 死活的인 문제로서 수령에 의해서만 歷史上 처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에게로의 권력계승을 正當化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권력계승을 위해서 유교적 傳統에서 내려오는 家父長的·權威主義의 文化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계승은 다른 어떠한 공산권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異例的 現象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共産體制에서는 産業化過程을 거치면서 비교적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북한공산체제에서는 教條的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전체주의체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북한사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狀況에 直面하게 될 때 教條的 이데올로기를 계속 維持할 수 없으며 따라서 金日成 유일체제나 金正日 後繼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북한공산주의자들이 維持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經濟政策은 더 이상 그 명분을 유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 맺 음 말

現 段階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념교육의 과제는 어떠한 이념이든 또는 思想이건간에 그것이 非人間的이거나 反人間的이거나 또한 非科學的인 것이라면 批判되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亞流들에 대해서 批判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根據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과격한 이데올로기의 追求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국익을 근본적으로 威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의 世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더우기 공산권의 사회와 체제도 격심한 變化를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분단된 지 40여년이 경과된 南北韓關係는 조금도 改善되지 않은 채 적대적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客觀的 환경이 매우 복잡한 氣流들에 의해서 影響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의 客觀的 환경의 인식도 복합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客觀的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복합적 인식의 틀과 동시에 우리 民族의 生存과 국가이익의 追求라는 原則 위에서 이념교육의 課題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